#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 Satellite Laser Ranging using a femtosceond pulse laser \*진종한<sup>1</sup>, 이상현<sup>1,2</sup>, 김경희<sup>2</sup>, #김승우<sup>1</sup> \*J. Jin<sup>1</sup>, S. H. Lee<sup>1,2</sup>, K. H. Kim<sup>2</sup>, <sup>#</sup>S.-W. Kim(swk@kaist.ac.kr)<sup>1</sup> <sup>1</sup> KAIST BUPE 연구단, <sup>2</sup>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

Key words : Distance measurement, Satellite Laser Ranging (SLR), Ultra-short pulse laser

# 1. 서론

위성레이저 거리 측정(Satellite Laser Ranging, SLR)은 인 공 위성의 정밀 궤도 결정 및 고도 결정 등에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GPS 의 정밀 교정을 위해서 여러 지상관측소에서 여러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위 성 간의 혹은 지상관측소 간의 기준 주파수 시계의 교정 작업을 위한 갈릴레이 프로그램 등이 국제 협력으로 운영 되고 있다.

위성과 지상관측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위성 레이 저 거리 측정법은 1966 년부터 펄스 레이저 관련 연구로부 터 미국, 프랑스, 독일 등에서 시작되었다. 초창기 위성 레 이저 거리 측정에 사용된 광원은 루비(Ruby) 레이저이며, Q-스위칭 방법으로 20 ns의 펄스 폭을 갖고 1 Hz의 반복률 을 갖는 펄스를 생성하였다. 이 때 거리 측정 분해능은 대 략 1 m 수준이었다. 그 이후 계속 측정 분해능이 향상되어 현재는 정규점(Normal Point) 기준으로 1mm 수준을 구현하 고 있으며, 광원은 Nd:YAG 레이저가 널리 사용된다. 이는 중심파장이 532 nm 이며, 펄스폭은 작게는 수십 ps 에서 크 게는 140 ps 을 갖으며, 수 Hz 에서 최대 2 kHz 의 반복률로 발진한다.

이런 광원의 펄스 폭, 반복률, 광원의 세기 등은 위성 레이 저 거리 측정의 측정 분해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, 본 연구는 모드 잠금 방법으로 780 nm 의 중심파장으로 10 fs 수준의 펄스폭과 80 MHz 의 반복률을 갖는 펨토초 레이 저를 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법에 적용하고자 한다. 좁은 펄스 폭을 이용하여 향상된 시간 측정 분해능을 구현할 수 있고, 높은 첨두 세기를 통해 좋은 S/N 비의 신호를 해석하 여 측정 분해능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, 넓은 광원의 대역 폭은 대기 환경 분포의 측정 등의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.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위성 레 이저 거리 측정법에 펨토초 레이저를 광원으로써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.

#### 2. 펨토초 레이저

펰토추 레이저는 증폭 매질인 티타늄 사파이어 (Ti:Sapphire)가 400 ~ 600 nm 에 이르는 넓은 흡수 대역과 650 ~ 1100 nm 에 이르는 넓은 방출대역을 갖기 때문에 동 시에 많은 수의 주파수 모드들이 발진한다.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펨토초 레이저는 증폭 매질의 대역폭,Δv가 중심파장 780 nm 에서 50 nm(FWHM)이고, 주파수 모드간 간격이 80 MHz 이므로, 동시에 발진하는 주파수 모드의 수 는 대략 3×10<sup>5</sup>개이다. 보통의 경우 이 모드들은 독립적으 로 진동하지만 외부의 수단에 의해 이들을 결합시키고 위 상을 잠금(lock) 시킬 수 있으며, 이런 모드 잠금(modelocking) 방법을 사용하면 펄스 형태의 빛을 발진시킬 수 있다. Fig. 1(a)와 같이 발진하는 주파수 모드들 간의 모드동 기(mode-lock)된 경우 펄스 형태로 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, Fig. 1(b)와 같이 주파수 모드의 위상들이 독립적으로 진동할 경우 백색 잡음(white noise)처럼 발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.

모드 잠김된 펨토초 레이저에서 발진된 펄스는 공진기 내부의 증폭 매질을 지나면 펄스의 에너지에 따른 비선형 효과로 공진기 내부에서 시간에 따른 펄스의 위상이 천이 되는 현상을 보인다. 비선형 위상 천이(nonlinear phase shift) 는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펄스가 공진기 내의 여러 분산 재료(dispersive material)에 의해 군속도 분산(group velocity dispersion, GVD), 즉 군속도(group velocity)와 위상속도(phase velocity)의 차이에 의해 생겨나게 된다. 이를 시간 영역에 서 Fig. 2 와 같이 고려한다면, 펄스와 펄스 사이의 시간 간 격이 *T<sub>r</sub>*(=1/*f<sub>r</sub>*)이고, 비선형 효과가 전혀 없다면 혹은 완전히 보상된다면 펄스의 첨두와 펄스 내부의 위상 첨두는 같으 며, 비선형 효과가 생기게 되면 펄스 첨두와 위상의 첨두 가 위상천이(phase shift)량, △ Φ 만큼 다르게 된다.







Fig. 2 Phase shift due to group velocity dispersion, GVD

펨토초 레이저의 주파수 모드는 Fig. 3 과 같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빗(comb)과 비슷하여, 광주파수 대역의 빗이 라는 이름으로 광 빗(optical comb)이란 표현을 사용한다. 광 빗의 i 번째 주파수 모드, f<sub>i</sub> 는 Fig. 3 과 같이 펄스와 펄스 사이의 시간 간격의 역수인 반복률, f<sub>r</sub>과 공진기 내부에서 생기는 분산에 의한 옵셋 주파수, f<sub>o</sub>로 식(1)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.

$$f_i = i \cdot f_r + f_o (n = 1, 2, 3,...)$$
 (1)

일반적으로 빛의 주파수는 300~400 THz 이며, 반복률의 주 파수, f, 와 옵셋 주파수, f<sub>o</sub> 는 수십 MHz 수준이므로, 아주 안정화된 원자 시계를 통해 라디오 주파수 (radio frequency) 영역의 두 주파수의 안정화를 통해 수백 THz 에 해당하는 높은 광 주파수를 안정화할 수 있다. 이런 안정화된 펨토 초 레이저의 광 빗은 정밀 광주파수 측정 및 분광학에서 널리 사용된다<sup>1</sup>.



3. 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

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(SLR, Satellite Laser Ranging)은 지 상으로부터 펄스 레이저가 발사된 시간과 위성에 부착된 레이저 반사경으로부터 되반사한 광자가 지상 관측소의 검 출기에 의해 검출된 시간을 측정하여, 지상 관측소로부터 위성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다. 위성 레 이저 거리 측정 시스템은 Fig. 4 와 같이 크게 지상 관측소 의 지상시스템과 위성에 부착되는 레이저반사경으로 구성 된다. 또한 지상시스템은 레이저를 발진하는 레이저 광학 부 (laser optics), 발진된 레이저를 발진하는 레이저 광학 부 (laser optics), 발진된 레이저를 발자하고 광자를 수신하 는 망원경부 (telescope), 수신된 신호를 감지하는 검출기부 (detector), 및 레이저 발진시간과 반사경으로부터 반사된 신 호가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간 측정부 (timing system)로 크게 구분된다<sup>2,3</sup>.



Fig. 4 Schematics of satellite laser ranging

현재 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 방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 펄스 레이저의 펄스 폭은 10 ps 수준이다.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에는 10 fs ~ 120 fs 의 수준으로 아주 짧은 펄 스 폭을 갖기 때문에 시간 분해능이 높아지며, 따라서 정 밀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. 하지만 대기에서의 산 란과 분산 효과에 의해 펄스 폭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.

반복률의 경우에는 펨토초 레이저가 250 kHz~1 GHz 로 기존의 ps 펄스 레이저에서 얻을 수 있는 2 kHz 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펄스의 수가 많아져 훨씬 높은 S/N 비를 갖는 신호를 획득할 수 있으며, 이 역 시 정밀도를 향상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하지만 위성과 지상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수백 km 의 긴 거리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충분해야 한다. 현재 ps 펄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532 nm 의 단파장으로 대략 수십 mJ 의 에너지를 갖는다.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에는 780 nm 의 중심파장을 갖으며, 에너지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. 하지 만 펨토초 레이저는 여러 단에 결쳐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 에 대략 수 mJ 수준의 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.

그리고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대기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후의 스펙트럼(spectrum)을 통해 대기 환경을 측정할 수 있 으며, 이를 통한 정밀한 거리를 얻기 위한 교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. 특히 펨토초 레이저의 중심 파장인 780 nm 의 대역은 지구 대기 환경에서 아주 낮은 흡수율을 갖는 흡수 대역이므로, 기존의 532 nm 단파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광자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Table 1 Comparison of light source of SLR

Item	ps pulse laser (state of the art)	fs pulse laser
amplification medium	Nd:YAG	Ti:Sapphire
pulse width	10 ps	$10~fs \sim 120~fs$
repetition rate	2 kHz	$250 \; kHz \sim 1 \; GHz$
maximum energy	~ mJ @ 532 nm	~ mJ @ 780 nm (after amplification)
wavelength	532 nm (1064 nm)	250 nm ~ 2500 nm (Boardband)

## 4. 결론

위성 레이저 거리 측정 방법은 10 ps 수준의 펄스 폭을 갖는 532 nm 단파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1 mm 의 측 정 분해능으로 위성과 지상 관측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 였다. 펨토초 레이저는 대역폭이 넓고 주파수 모드의 모드 잠금을 통해 10 fs 수준의 짧은 펄스 폭을 생성할 수 있다. 이는 시간 분해능을 향상시켜주며, 동시에 수십 MHz 의 반 복률로 높은 S/N 비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. 펄스는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흡수가 생기므로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면,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에는 여러 단의 증폭을 통 해 mJ 수준의 펄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흡수가 적은 780 nm 대역의 중심파장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광 자를 통한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그리고 펨토초 레이저의 넓은 대역폭을 통한 대기 환경 측정이 가능하게 되어, 거리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분석까지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. 하지만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함에 있 어 생기는 검출기 개발의 문제나 각종 대기 분산에 따른 거리 정보의 왜곡 문제들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.

# 후기

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창의적 연구 진흥 과제(Creative Research Initiative, CRI)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 BUPE(Billionth Uncertainty Precision Engineering) 연구단에서 수행되었습니다.

### 참고문헌

- Jin J., Kim Y.-J., Kim Y., Kang C.-S., Kim S.-W., "Absolute length calibration of gauge blocks using optical comb of a femtosecond pulse laser," Opt. Exp., 14(13), 5968-5974, 2006.
- Degnan, J.J, "Millimeter accuracy satellite laser ranging: a review, Contributions of Space Geodesynamics: Technology." AGU Geodynamics Series, 25, 133-162, 1993.
- HU Jingfu, LI Xin, YANG Fumin, CHEN Wanzhen, AHANG Zhongping, "Calculation of distribution of effective reflection area for space-borne laser retro-reflector array," Science in China Ser. G Physics, Mechanics & Astronomy, 47(3), 330-337, 2004.